

담화와 인지, 제10권 3호, 2003년

## 한국어 파생접사에 나타난 인지의미와 기능 변화 연구\*

- 명사파생 접두사에 한정하여

이 양 혜

(부산외국어대학교)

Lee, Yanghye. 2003. A Study of Cognitive Meanings and Functional Changes in Derivational Suffixes in Korean: Focus on Noun-Derivational Prefixes. *Discourse and Cognition* 10.3, 207-228. The basic assumption of the paper is that an extended meaning of a language represents the weakness of a concrete meaning that a language originally has. The extension of meaning in a language stands for abstractness of meaning. The abstract meaning of a morpheme underlies the meaning of a suffix, a case-mark, and an ending rather than the meaning of an independent noun. Words like 'kae(개:dog), tol(돌:stone), and al(알:egg)' in Korean undergo the change of meaning and function as well. The extended meanings of 'kae, tol, and al' reflect the image crea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an object. If the extended meaning possesses a specific meaning, it causes the functional change of a language. Given such an assumption, in this paper, an analogy plays a vital role in leading to a language change. Based on this theory, the change of meanings and functions of prefixes, 'kae-, tol-, and al-' results from the role of analogy.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meaning, function, change, prefix, analogy, image

### 1. 들어가기

우리의 삶이 정채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듯이, 언어 역시 인간의 문화 도구인 이상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왜냐하면 언어 변화의 주체는 언어 자체이기보다 언어 주체의 인식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5-A00059) 그리고 이 논문은 2003년 8월에 열린 한국어학회 28차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기초로 더한 것임.

따라서 인간의 사회와 문화가 변함에 따라 언어에 대한 인지도가 바뀌고 이로 인한 영향으로 언어 또한 변화를 겪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지력은 생활, 문화, 습관, 언어 등 많은 것을 바꾸어 놓기 때문이다. 사람의 인지력 중 언어에 대한 인지력은 한국어 접사의 변화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방향적 특징은 음운 변화, 기능 변화, 의미 변화로 나타난다.<sup>1)</sup> 이러한 변화는 이들 각각의 개별적 변화도 나타나지만,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를 겪기도 한다.

이 글은 인지 언어학적 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로, 단어 형성론에 있어서 주요한 언어 요소인 접사의 기능 획득을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명사 파생접사에 한정하여 이들의 인지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이는 접사의 기능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언어가 변화해 가는 한 양상과 변화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파생접사는 뜻만을 더하는 한정적 접사가 있는가 하면, 통사적 범주, 즉 품사까지도 바뀌게 하는 지배적 접사가 있다. 접두사는 전자에 해당되고, 접미사는 전자와 후자 모두에 해당된다. 이러한 접두사와 접미사 중 사람들의 인지도에 따라 변화의 폭이 다소 큰 접두사를 논의 대상으로 한다. 변화의 폭이 적은 접미사는 언어 변화의 인지도를 감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 대상의 영역은 언어 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개-, 돌-, 알-’에 국한한다.

연구 방법은 한 형태소의 의미 변화나 기능 변화가 언어 자체의 변화이기보다 사람들이 대상 언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지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데에 역점을 둔다. 이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문헌 자료가 인지 변화의 근거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문헌에 나타난 문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쓰임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옛말 문헌이 다소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여도 연구 대상 언어가 역사적인 문헌 자료에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현대어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인지 변화 과정을 살피기로 한다.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이루어진 파생접사로의 기능 획득 논의는 실사의 허사화를 다룬 유창돈(1964a:210)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조선시대 언어를 대상으로 아주 적은 지면을 할애하여 ‘홍다’와 ‘드되다(-답다)’의 두 어휘만을 간단히 다루고 있다. 이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실사 그 자체가 접사화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휘들과 결합되는 과정에서 접사화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

1) ‘변화’와 ‘변이’를 김영옥(1995:12-13)에서는 전자를 역사적인 과정으로, ‘후자’를 공시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표준국어 대사전」(1999)과 「우리말 큰사전」(1992)의 뜻을 참조하여(「역사적 변화, 시대적 변화」가 쓰이는 점을 감안한 것임), ‘변화’는 통시와 공시 모두에 적용되는 뜻으로, ‘변이’와 ‘변천’은 통시적인 역사적 과정이 있는 뜻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소 최근 논의인 고영근(1997:192-193)에서는 현대어에서 접사인 ‘만-’(만아들), ‘한-’(한숨), ‘와-’(와아들), ‘-이’(늙은이) 등이 중세에 자립어로 쓰인 일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2)</sup> 이는 자립어가 역사적인 변천에 따라 접사로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대어에서도 형태소의 기능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은 김창섭(1996: 36-39)에서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는 ‘구두방, 만화방, 게임방’이나 ‘물병자리, 거문고자리, 사냥꾼자리’ 등의 ‘방’과 ‘자리’가 본질적으로는 자립형태소인 단어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합성어 속에서 특수한 의미로 변화하여 단어를 형성하기 위한 요소로 발달한 것으로 본다.<sup>3)</sup> 이 논의는 자립어가 다른 언어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단어 형성 요소로 변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선 논의들을 총괄해 볼 때, 현대어에 사용되는 많은 접사가 과거 자립형태소인 단어에서 변화한 것이며, 또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선 논의들에서 다른 자립명사에서 접사로의 변화는 옛말과 현대어의 기능 차이만 밝혔을 뿐, 그 원인이나 과정을 밝히고는 있지 않다. 이 글은 기존 논의들처럼 기능 변화를 다루되, 그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논의에서 밝히지 않은 변화의 원인이나 과정을 인지 언어학적 관점에서 밝히고자 한다. 즉 자립형태소일 때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지, 또 이것과 기능 변화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루려는 기능 변화는 문법 범주의 바뀜이나 역할 변화 등이 이에 속한다. ‘기능’은 언어학에서 중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즉 의미 기능과 문법 기능으로 나뉘어 언어학 논의 기술에 많이 사용된다. 물론 기능이란 단어가 의미적인 영역이나 문법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엄밀하게 언어학에서 기능이란 문법에 국한되어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 경향을 따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의미와 기능을 구별하여 전자는 말 그대로 ‘뜻’, 후자는 문법과 관련된 범주의 역할에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이 글의 구체적인 논의 대상은 자립명사에서 접사로 변화하는 데 있어 의미 변화와 기능 변화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형태소들 중 그 변화가 뚜렷한 형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형태소의 의미 변화와 기능 변화의 기제는 인간의 인지 작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3장에서 대상 형태소를 논의하기 전에 논의 기반으로서 2장에서 변화 기제를 먼저 밝히기로 한다.

2) 이 형태소들은 현대어에서는 접사로 쓰이고 있지만, 중세에서부터 이미 자립어와 접사로 혼용되어 쓰였던 것이다.

3) 김창섭(1996:20-21)은 ‘자리’와 같은 것을 단어형성 전용 요소로 규정하는데, 문장 형성을 위한 요소인 단어나 구가 특수한 의미를 지닌 채 단어 형성을 위한 요소로 발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비해 단어형성 전용 요소를 송원용(1998:30)에서는 통사적 요소가 의미 특수화를 겪어 단어형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의견은 서술 방법의 차이일 뿐 비슷한 개념이다.

## 2. 접사의 의미와 기능 변화 기제

인지론적 관점에서 단어 형성 과정과 단어 형성 체계에는 언어 화자의 인지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단어 형성에 인지도가 반영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 형태론에서는 단어 형성을 언어 화자들이 수행하는 하나의 인지 과정으로 이해하여 이에 대한 관점을 통시성에 둔다. 즉, 인지론적 관점 이전에는 단어 형성이 규칙에 의한 것이라고만 생각한 데 비해, 인지론적 관점에서는 과정에 의해서도 단어가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어 형성을 규칙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생성이론적 단어 형성론에서는 규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언어 현상이 많이 생겨났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자 예외 규칙을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예외 규칙이 늘어나, 이 역시 합리적인 문제점 해결 방법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 인지론적 관점의 언어 이론이다. 인지언어론에 의한 단어형성론은 그 중심이 언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의 인지에 따라 언어 현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만 단어 형성은 규칙이나 과정 중 어느 하나를 양자택일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언어 화자들은 어떤 어휘가 머리 속에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머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휘 중 비슷한 것에 유추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쓰게 된다. 이는 인지언어학 이전의 이론에서 단어 형성을 규칙으로 해결하고자 한 언어 이론과 관점을 달리 한다. 규칙은 통시적이기보다 공시적인 현상이며, 과정은 공시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통시성으로 설명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통사론적 과정은 반드시 공시적이지만, 단어 형성에 있어 공시성과 통시성의 구분은 그렇게 명시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어란 공시적 현상으로 생겨난 것이 통시적으로 내려오면서 변화될 수도 있다. 언어 화자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공시적으로 머리 속에 들어 있는 어휘 자료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러한 단어 형성 과정의 결과를 다시 머리 속 어휘 자료로 저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머리 속 어휘 자료 이용과 만들어진 결과물 저장이 반복됨으로써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기도 하고, 어떤 단어의 새로운 뜻이 정착되기도 한다. 규칙은 과정에 의해 형성된 언어들의 보편화에 의한 규범화 인종이다. 따라서 과정의 결과에 의해 규칙이 만들어 질 수 있고, 이 규칙은 과정을 거쳐 다시 재조정되어 새로운 규칙으로 형성되기도 한다.<sup>4)</sup>

4) 이 글은 단어 형성이 공시적, 통시적 모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호승(2001:113-119)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최근 단어 형성론과 관련된 공시성과 통시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데, 전자는 시정곤(1999)에서, 후자는 배주채(1991), 송원용(2002), 채현식(2000)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지언어학적 관점에 따른 단어 형성 이론에는 단어 형성을 과정으로 설명하며, 단어 형성의 기제를 유추로 보고 있다. 유추는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추론 작용(채현식 2000:67)으로, 언어 변화의 한 유형(배주채 1991:137)이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과정(채현식 2000:69)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로운 단어는 이러한 유추라는 일종의 추론 과정의 결과물(송원용 2002:9)일 수 있다. 또한 유추는 제한적이고 불규칙한 단어 형성 과정을 위한 기제(Bauer 1983:95-96, 김창섭 1996:14)가 되기도 한다. 기존의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논의는 언어를 통시적으로 바라본 관점이다. 시정곤(1999)에서는 단어 형성을 공시성에 두고 규칙으로 설명하려 하고 있으나, 유추가 단어 형성 기제로 쓰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시정곤(1999:271-274, 278)에서는 유추는 핵심적인 형성기제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며, 생산성의 개념을 규칙과 관련시키고, 창조성의 개념을 유추적 능력과 관련시켜 유추의 성격을 '형성기제'가 아닌 '과정'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즉 유추 자체가 새로운 단어 형성의 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성기제를 만들어 내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본다.

생산성이란 단어 형성의 규칙화와 연결되며, 과정은 이런 규칙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단어 형성에는 규칙과 과정이 모두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단어 형성에 있어 유추 역시 중요한 단어 형성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유추라는 언어 변화 기제는 음운변화, 문법변화, 의미 변화 중 어느 것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배주채 1991:139).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은 유추의 틀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유추는 단어 형성 틀뿐만 아니라 단어 형성 요소에 대한 변화도 가져와, 단어 형성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단어 형성 요소에 대한 유추의 적용은 기능 변화와 의미 변화 모두에 작용한다.<sup>5)</sup> 이 글에서 다루는 유추에 의한 기능 변화란 규칙화 틀을 말하기보다 어떤 형태소가 가지고 있는 역할 바뀔을 의미한다. 유추에 의한 의미 변화는 어떤 어휘가 가지고 있는 원형적 의미가 변하는 것으로, 이에는 의미 축소와 의미 확대까지 포함한다. 언어 화자가 일회적으로 사용한 유추는 공시적이지만, 동일한 유추의 지속적 사용은 일정한 형태로 고정되고, 이러한 기능이 인정되기까지는 통시적 과정이다. 인증된 기능으로 어떤 단어를 생산해 내는 것은 공시적이며, 이것은

5) 유추의 틀은 Bybee(1988:135)에서는 구조적 공통성이 추상화된 틀을 의미하는데, 이를 조어규칙과 같이 보는 견해(Langacker 1987:447, 시정곤 1999:277-281, 김종도 2002:95)와, 이와 다소 차이가 있음 주장하는 견해(채현식 2000:79-80)가 있다. 이 글에서는 과정은 인지적 변화로, 규칙은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 반복하여 이루어지면 틀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 틀이 공신력을 얻으면 규칙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본다.

규칙이다. 따라서 어떤 언어 요소가 과거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단어 생산성이 있어 공식적으로 많은 단어를 형성해 냄으로써 규칙화된 것도 있지만, 어떤 언어 요소는 유추를 통해 형성된 것이 언어 화자들의 공신력을 언어 규칙화된 것도 있다.

유추에 의한 의미 변화는 언어 내적 환경뿐 아니라 언어 외적 환경에 의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언어 내적 환경은 언어가 관련성을 맺고 있는 다른 언어와의 관계, 즉 언어 관계를 말한다.<sup>6)</sup> 유추의 언어 관계는 한 언어의 가로 관계(결합 관계)에 의한 것이다.<sup>7)</sup> 언어 외적 환경이란 언어가 맺고 있는 사회적·문화적 환경이다. 언어는 사물이나 사건, 상황 및 상태들의 개념을 언어 형태로 기호화한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사물이 생겨나고 사건이나 상황이 생겨나며, 많은 대상물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 외적 상황에 따라 사람들은 이에 대한 개념을 표현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 대체로 언어들은 비슷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것끼리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어 머리 속에 저장되어 있다.<sup>8)</sup>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념의 형성이 필요할 때, 어떤 개념이 머리 속 언어의 개념과 같을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다. 하지만 머리 속 기억 자료 중 잘 생각나지 않거나 머리 속 기억에 없는 개념은 머리 속 기억에 있는 비슷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것에서 이끌어 내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쓰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언어의 유추 작용이다.

유추에 의한 접사의 기능 변화는 언어의 분절성과 통합성 때문에 일어난다. 언어는 더 작은 언어 요소들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필요할 때 쪼개 언어의 일부분을 이용하게 된다. 쪼개어진 언어는 원래의 언어에서 쪼개어지기도 하지만 결합된 언어가 다시 쪼개어지는 경우도 있다.<sup>9)</sup> 이러한 쪼개 언어의 일부분이 기능상이나 의미상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편리

6) 언어란 논의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논자마다 그 개념 정의가 다를 수 있다. 언어 관계를 김진해(2000:28-29)는 둘 이상의 어휘가 긴밀하게 결합되는 현상으로, 홍종선 외(2001:3)에서는 인접성과 함께 문장에서 자주 공기하는 단어들의 관계를 포함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언어 관계에는 의미상의 관련성까지도 포함된다고 본다.

7) 유추는 어떤 하나의 성분 가지에서의 선택권의 '계열적 축(paradigmatic axis)'을 따라 작용한다 (Jakobson & Halle 1956). (Hopper, P. J. & Traugott, E. C. 1993:56에서 재참조).

8) 이 연관성은 Bybee(1985:210-211)에서는 어휘부에 저장된 각 항목이 다른 어휘 항목들과 매우 다양한 유형의 관계나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어휘 연결관계는 연속적이며 역동적이고, 단어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다중적이고 다양한 관계성을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9) 이는 일종의 재분석에 의한 것으로, '숫보기, 어리보기', '석수장이, 양복장이', '고생살이, 벼슬살이' 등의 '-보기, -장이, -살이'는 본래 다른 어근에 '-보, -장, -살'이 결합하고, 다시 '-기'나 '-이'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던 것이었지만, 다시 '-보기, -장이, -살이'가 쪼개어져 파생접미사의 역할을 가지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재분석은 유추와 함께 형태구조적인 변화에 작용하는 중요 원리라고 할 수 있다(이기동 2000:285).

하게 이용한다. 쪼개어진 언어가 일정한 기능이나 의미를 가지게 되면 이것이 기반이 되어 많은 언어 형성에 적용하게 된다. 접사는 이러한 쪼개어진 언어 일부분이 의미 변화를 겪으면서 기능 변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쪼개어진 언어의 의미는 역시 쪼개어지기 전의 개념이나 대상의 특성이나 속성, 그리고 이미지 등에서 추출된 의미의 일부분일 경우가 많다.<sup>10)</sup> 즉 언어 자체가 쪼개어지기도 하지만, 의미가 쪼개어지기도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쪼개어진 의미는 한 형태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가 되고, 그 다양한 의미로 인하여 자립 요소보다 결합 요소로 사용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이 바뀌기도 한다.

언어 변화에 관여하는 유추는 어휘가 가지고 있는 원형적 의미만을 기반으로 하기보다 어휘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의미, 정확하게 말하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함께 어휘의 속성이나 특성, 그리고 이미지 등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언어 해당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특성, 이미지들 역시 은유와 환유의 영역이 되고, 이로 인해 의미 변화가 나타나며, 이것은 다의어의 계기가 되는 한편, 기능 변화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sup>11)</sup> 이는 유추가 언어에 대한 화자들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인지는 화자의 언어 지식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 지식의 변화가 관용화되고, 일반화되면 어휘부에 새로운 어휘 항목이 추가되어 다양한 측면에서 어휘 연결망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유추가 언어 변화의 기제로 작용하는 만큼 파생 접사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파생접사는 새로운 단어 형성의 핵으로서 여기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접두사는 어기의 통사적 범주를 바꾸지는 않고, 여기에 뜻을 첨가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에 비해 접미사는 어기의 통사적 범주, 즉 품사를 바꾸기도 하지만, 이 역시 어기에 뜻을 첨가하여, 어기가 단어나 어근으로서 가지고 있던 뜻에 변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접두사는 의미의 핵이고, 접미사는 기능과 의미 모두의 핵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파생접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품사를 바꾸는 기능보다는 어기에 뜻을 더하는 기능

10) 이 글에서 이미지(image)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으로, '심상', '영상', '인상'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속성(屬性)은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 특성(特性)'은 '그 것에만 있는 특수한 성질'의 뜻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속성'에는 내재적인, '특성'에는 외재적인 인식이 두드러진다.

11) 어떤 유형의 추론은 은유적 과정과 환유적인 과정에 의한 것이다. 은유는 유사성(similarity)의 인지능력에 바탕을 둔 것임에 비해, 환유는 인접성(contiguity)의 인지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다(임지룡 1996a:249, 1996b:120-121). 은유적인 과정은 개념적 경계를 가로지르는 추론의 과정이다. 이것은 '본뜨기(mapping)' 혹은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연상적 도약(associative leap)'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 본뜨기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유추와 도상적 관계에 의해 동기화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는 범언어적으로 관찰되는 경향이 있다(Hopper & Traugott 1993:77-78). 특히 은유는 의미 변화에서 가장 널리 인정된 과정 중의 하나이다.

이라고 할 수 있다. 파생접사의 역할 중 하나가 여기에 뜻을 첨가하는 기능이라면, 이 파생접사 역시 어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말과 등가의 가치를 지닌다.

국어의 접사들은 역사적 흐름에 따라 기능과 의미, 그리고 형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파생접사의 기능이나 의미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시대를 내려오면서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받아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 언어 자체의 변화라기보다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의 인지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람의 인지 작용이다. 믿가지, 믿겨집, 믿곤, 믿글월, 믿나라ㅎ'의 '믿-'은 '원래의' 또는 '본래의'의 뜻을 가진 접두사다.<sup>12)</sup> 그러나 현재 이러한 '믿-'은 더 이상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지 않으며, 기존에 만들어졌던 이들 단어조차 화자들의 머리 속 사전에 지워져 버린 상태이다. 이는 과거의 언어 화자들에게는 '믿-'의 기능이나 의미가 인지되어 있었으나, 시대를 내려오면서 언어 화자들의 '믿-'의 의미와 기능의 인지 능력이 사라졌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믿-'이란 접두사는 현대어에서는 생존조차 하지 않는다.

이처럼 과거에 생산성이 있던 접사가 후대로 내려오다가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됨으로써 화자의 머리 속에서 지워지기도 하고, 새롭게 단어를 형성하는 형태소가 생겨나기도 한다. 한편 이미 있던 형태소의 기능이나 의미가 바뀌어 가기도 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형태소의 기능 변화는 통사적 범주를 가지고 있던 자립 요소인 단어가 점점 의존적으로 변해감으로써 단어 형성에 관여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형태소의 이러한 의존성은 형태소가 가진 의미 영역이 점점 확대되어 자립어였을 때와는 다른 특이 의미가 생겨나 추상화 영역이 확대됨으로써 생겨난 것이 대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명사파생 접두사 개별형태소를 중심으로, 의미 확대와 더불어 기능 변화가 나타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루는 형태소는 자립명사에 의미 변화가 나타나고, 그것이 확대됨으로써 기능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어휘인 자립명사 '개, 돌, 알'과 접두사 '개-, 돌-, 알-'이 연구 대상이다. 이러한 대상 어휘의 의미 변화 요인은 대상 언어가 가지고 있던 특성이나 속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미지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3. 접사로의 기능 변화와 인지 의미

형태소의 기능 변화는 의미 변화와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기능

12) '믿가지, 믿겨집, 믿곤, 믿글월, 믿나라ㅎ'은 각각 '믿가지, 본처, 본고장, 원문, 본국'을 뜻한다 (유창돈 1964b:347 참조).



변화는 형태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만이 변화하기보다 의미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데, 의미 변화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 언어 화자들이 변화된 뜻을 또다시 편리하게 다른 언어와 함께 이용하면서 형태소의 의미는 확대되어 나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휘는 많지만 사람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다 나타낼 수 있는 만큼 많지는 않고, 또한 사람들의 머리 속에 그러한 어휘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화자들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 등을 표현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어휘를 찾아 쓰기도 하지만 그러한 어휘가 생각나지 않을 때나, 혹 적절한 어휘가 없을 때는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 쓰기도 한다. 새로운 단어는 완전히 생소한 것이기보다 한정된 어휘들을 이용하여 복합어를 만들어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복합어 형성 중 파생어 형성에 작용하는 접사는 자립 형태소가 변화를 겪어 단어 형성 기능을 가지게 된 경우가 많다.<sup>13)</sup> 파생어에 있어서 어기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를 비교해 보면 파생어의 의미가 어기의 모든 의미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다(송철의 1992:68). 이 말은 어기가 다의어인 경우 어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 중 한 부분이 접사와 결합하여 의미를 형성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의 한 부분이 파생어 형성때에 사용되기도 한다면 접사 역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양한 의미의 한 부분이 파생어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많은 파생 접사의 과거는 자립 형태소이고 굴절 접사인 조사나 어미와 달리 어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 (가) ‘개-’

자립명사 ‘개’는 짐승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개념적 의미는 다양성을 띠지 않는다. 개념적 의미는 원형적 의미가 다른 언어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확대된 의미까지 포함하게 된다. 그런데 ‘개’는 짐승 중의 하나를 가리키기 때문에 자립명사로서 ‘개’는 의미 확대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개’의 개념적 의미는 원형적 의미와 동일하며, 따라서 ‘개’의 뜻은 다음의 (17)에 국한될 뿐이다. 극히 작은 의미 변화가 있지만, 그것이 ‘개’의 개념적 의미를 넓히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13) 우리말에서 이와 반대로 접사가 자립 형태소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아주 드물고 자립 형태소가 접사가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안주호(2001:95)에서는 역문법화 현상을 논의하면서 접사가 자립 형태소가 된 예로 ‘때문에, 나름대로, 만은’ 등만을 제시하고, 이는 아주 드문 현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대에 와서 자립 형태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접사는 이 외에 ‘꾼, 꾸러기, 장이’ 등이 있다고 본다.

## (1) ‘개’의 뜻과 기능 변화

## ㄱ. 자립명사 ‘개’의 뜻

‘갯과의 포유동물. 가축으로 사람을 잘 따르고 영리하다. 일반적으로 이리나 늑대 따위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

## ㄴ. ‘개’ 합성어의 뜻과 예

합성어1 : ‘개의 종류’ 진돗개, 똥개, ... .

합성어2 : ‘개의 d’, ‘개와 같은’ 개가죽, 개자식 ... ./ 개놈, 개돼지, ... .

## ㄷ. 접사 ‘개-’의 뜻과 파생어

개1- : ‘가치 없는’, ‘사리에 닿지 않는’, ‘헛된’. 개죽음, 개나발, 개수작, 개꿈.

개2- : ‘정도가 심한’. 개고생, 개꼴, 개망나니, 개망신, 개잡놈.

개3- : ‘산이나 들에 저절로 난’, ‘참 것이 아닌’, ‘함부로 막되어 변변하지 못한’ 개갯배이, 개고사리, 개꽃, 개다시마, 개떡, 개머루, 개복치, 개살구, 개상어 ... .

(1ㄱ) ‘개’의 뜻이 원형적 의미이다. 이 원형적 의미로 (1ㄱ) ‘개’는 자립명사로 사용되는 한편, (1ㄴ)의 예처럼 다른 언어 요소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형성하기도 한다. ‘개’가 (1ㄴ)의 ‘합성어1’처럼 사용될 때는 ‘개’의 종류를 나타내지만, ‘합성어2’처럼 사용될 때는 짐짐승 ‘개’를 나타내기보다 ‘개의’나 ‘개와 같은’과 같은 수식어적 기능을 띤다. ‘개’가 다소 수식어적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1ㄴ)의 ‘개’는 역시 원형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자립명사 ‘개’의 의미 변화는 다른 어휘와 결합 관계를 이루면서 일어난다. 이때의 의미 변화는 비유 표현을 위해 만들어진 어휘로 말미암은 것이다. 비유 중 ‘개’의 경우는 은유가 많이 적용된다. (1ㄴ)의 ‘합성어2’에 제시된 예 ‘개자식, 개가죽, 개놈, 개돼지’는 ‘개’가 어근의 자격으로 참여한 합성어이다. 하지만 이들 합성어는 ‘개’가 원형적 의미로 참여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결합어에 나타나는 ‘개’는 원형적 의미와는 다르다. 언어 화자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비유 표현은 의미 확대의 계기가 된다.<sup>14)</sup> 언어 사용의 비유는 크게 은유와 환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둘은 의미 확대의 중요한 기제이다. 은유는 유사성에 바탕을 두고, 환유는 인접성에 바탕을 둔다. ‘개’의 은유 역시 사 람에 빗대어 쓸 때는 유사성에 기반을 둔다.<sup>15)</sup> 이때 유사성에 영향을 끼는 것

14) 일상사에서 우리가 새로운 경험에 놓이게 될 때, 그것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인지책략(cognitive strategy)’은 백지상태에서 출발하여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미 경험한 바에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이렇게 볼 때, 비유는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매우 기본적인 책략의 하나이다(임지룡 1996b:120).

15) 은유는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단어들의 문제이고, 한 단어가 정상적으로 지시하는 것에 적용

은 사람들이 ‘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의한 것이다. 비유는 본질적으로 이미지 차원의 문제이며, 우리의 경험과 이해의 범주를 확장하고 창조하는 인지체계의 고유한 측면이기 때문이다.<sup>16)</sup> 더욱이 언어적 비유는 다양한 비유 가운데 가장 풍부하고 공유의 폭이 넓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제이기도 하다(임지룡 1996b:121-123).

<개’에 대한 이미지> 가치가 낮거나 없음.

‘개’의 근원 영역이 목표 영역에 투사될 때는 대부분 원형적 의미 그대로 투사되지 않고 유사성에 의한 은유의 방법이 적용된다. ‘개’ 복합어의 은유적 사용은 대상물이나 행위가 ‘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에 의한 것이다. 대상에 대한 이미지는 세계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대체로 문화적 관습에 의해 인지된다.<sup>17)</sup> ‘개’가 동물 중 사람과 가장 가깝다고는 하나, 동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은 하등의 대상에 부여하는 낮은 가치의 것이다. 이에서 유추된 여러 이미지는 ‘개’의 의미 확대 계기가 된다. 따라서 (1나) ‘합성어2’의 ‘개’에는 ‘가치가 낮거나, 가치가 없음’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합성어 결합요소로 쓰이던 ‘개’의 의미 확대가 점차 커지면 ‘개’의 의미가 원형적 의미와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의미 특이성이 생겨나게 된다. 의미 특이성은 접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1ㄷ)의 ‘개꿈’이나 ‘개죽음’, 그리고 ‘개망나니, 개잡놈’ 등에서는 아직 ‘개’의 원형적 의미가 조금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어기의 결합과 관련하여 보면, 원형적 의미는 거의 없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개꿈’과 ‘개죽음’은 ‘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 일부인 ‘가치 없는’의 의미 특이성이 생겨나 (1ㄷ)의 접사 ‘개1’의 뜻으로 정착된 것이다. 이에 비해 ‘개고생, 개망나니, 개망신, 개잡놈’ 등에서는 ‘개’가 ‘더욱 심함’의 뜻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개’의 원형적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이들에서 어기는 이미 부정적 의미를 띠고 있는 단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부정적 이미지인 ‘가치가 낮거나 없음’의 접두사 의미가 어기가 가진 부정적 의미의 강도를 크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따라 ‘개’는 어기에 ‘더욱 심함’의 특이 의미만 더하게 되어

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적용될 때 은유가 발생한다(임지룡 외: 134). ‘개’ 어휘 역시 대부분 사람에게 적용되면서 은유가 나타나고 있다.

- 16) 비유는 본질적으로 이미지 차원의 문제이다(임지룡 1996b:121). 이러한 이미지는 도식(schema)을 이룰 수 있으며, 이 이미지 도식은 은유적 투사를 통해 추상적·문화적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이건환 1998:83-87, 참조), 또 은유를 통해 개념적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전이되거나 전사될 수 있다고도 본다(Heine et al. 1991:46).
- 17) 인지작용이 언어와 문화 모두를 형성하는 것이고, 문화적 차이나 언어적 차이가 인지작용에 의해 유형화되고 통제되는 것이다(Bybee 1985:13-14).

(1ㄷ)에서 사용된 ‘개2’의 뜻이 생겨난 것이다. 사실 파생접사의 의미는 접사 형태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기보다, 자립 형태소일 때의 뜻이 어기와 결합하면서 생겨나서 관습적으로 굳어버린 경우가 많다. ‘개’의 특이 의미 역시 ‘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기와 결합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한편, ‘개’는 동식물 이름에 많이 쓰인다. 기존에 있던 동식물과 비슷하나 질이 낮은 것을 지칭할 경우에 ‘개’를 결합하게 된다. ‘개’로 말미암아 참 것 보다는 질이 떨어지는 많은 동식물의 명칭이 된 것은 자립명사일 때의 ‘개’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 ‘저가치성’ 때문이다. ‘저가치성’은 언어 화자들의 인식에 의하면 사람들이 직접 가꾸거나, 원래 알고 있는 것이기보다 ‘산이나 들에 저절로 난’ 것이거나 ‘참 것이 아닌’ 것, ‘함부로 막되어 변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뜻이 또다시 ‘개’가 가진 의미 특이성으로 자리잡아 (1ㄷ)의 접사 ‘개3’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이처럼 접사 ‘개’는 자립명사 ‘개’가 가지고 있던 원형적 의미와는 달리, 언어 화자의 인식이 비유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많은 의미 확대를 가져오고, 그것이 의미 특이성으로 자리잡아 결국에는 기능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sup>18)</sup>

## (나) ‘돌’

‘돌’은 자립명사로서 ‘돌(石)’과 접두사로서 ‘돌-’이 있다. 자립명사와 접두사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언어이기 때문에 그들의 범주는 다르다. 자립형태소로서 ‘돌’은 명사라는 어휘 범주를 가진다. 하지만 접두사 ‘돌-’은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자립적인 어휘 범주를 갖지 못하고 단어 형성에 있어서 여기에 뜻을 더해주는 기능만 가진다. 의미에 있어서도 표면적으로 이들 둘은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자립명사로서 ‘돌’은 ‘바위가 부서져서 된 광물질의 굳은 덩어리’이고, 접두사로서 ‘돌-’은 ‘품질이 낮은’, ‘산이나 들에 저절로 나는’ 또는 ‘제 구실을 못하거나 거짓된 것’의 뜻을 여기에 더한다. 하지만 접두사 ‘돌-’은 자립명사 ‘돌’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 연관성은 접두사 ‘돌-’이 자립명사 ‘돌’에서 왔기 때문이다.

### (2) ‘돌’의 뜻과 기능 변화

#### ㄱ. 자립명사 ‘돌’의 뜻

18) 문헌상에 ‘개’가 접사로 사용된 옛말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개’ 접사화는 현대에 와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바위가 부서져서 된 광물질의 굳은 덩어리.’

ㄴ. ‘돌’ 합성어의 뜻과 예

합성어1 : ‘돌의 종류’ 부싯돌, 바윗돌, 조약돌, 차돌, … .

합성어2 : ‘돌로 된 ㄹ’ 돌계단, 돌기둥, 돌숯, … .

합성어3 : ‘돌(또는 돌 사이)에서 나는 ㄹ’ 돌김, 돌창포, 돌양지꽃, 돌단풍, … .

합성어4 : ‘돌처럼 생긴 ㄹ’ 돌사과, 돌감, 돌배, 돌가자미, … .

ㄷ. 접사 ‘돌-’의 뜻과 파생어

돌1- : ‘품질이 낮은, ‘산이나 들에 저절로 나는’. 돌미나리, 돌꿀밤, 돌매밀, 돌벼, 돌삼, 돌팔, … .

돌2- : ‘제 구실을 못하거나 거짓된 것’. 돌계집, 돌놈, 돌무당, 돌중, … .

(2ㄱ)은 ‘돌’이 자립명사로 쓰일 때의 원형적 의미이자 개념적 의미이다. 자립명사로서 ‘돌’의 뜻은 대상을 설명하는 것인 만큼, 그 자체의 뜻이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적 의미는 원형적 의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자립 명사의 ‘돌’이라도 일단 다른 어휘와 결합하여 쓰이기 시작하면, 원형적 의미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합성어 형성은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기 때문에 자립명사 ‘돌’이 그대로 참여한다고 본다. 그러나 (2ㄴ) 합성어의 ‘돌’에는 의미 변화가 나타나 있다. 특히 합성어 형성에서 ‘돌’이 접미 요소로 참여할 때보다 접두 요소로 결합할 때의 의미 변화 폭이 더 크다. (2ㄴ)의 ‘합성어1’처럼 ‘돌’이 접미 요소로 결합할 때는 돌의 종류이기 때문에 자립명사 ‘돌’의 뜻과 다르지 않다. 물론 (2ㄴ)의 ‘합성어2, 3, 4’ 역시 자립명사 ‘돌’과 관련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의 의미로만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다. (2ㄴ)의 ‘합성어2’는 ‘돌로 된’ 즉 ‘돌을 재료로 한’의 뜻으로 참여하는데, (2ㄱ)에 비해 작은 의미 변화만 나타나고 있다. ‘돌계단, 돌기둥, 돌숯’ 등은 ‘돌’의 종류가 아니라 돌을 재료로 한 물건들이다. 그러나 (2ㄴ) ‘합성어3’의 ‘김, 창포, 양지꽃, 단풍’ 자체는 ‘돌’과 무관하다. 돌의 종류도 돌을 재료로 한 것도 아니다. 여기서 ‘돌’은 결합어의 환경적 요소이기 때문에, (2ㄴ)의 예들은 돌에서 자라는 식물의 명칭을 가리킨다. 따라서 (2ㄴ)의 ‘돌’은 단지 의미면에서 결합어의 주변적 요소로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복합어에 있어서 접두 요소는 수식어적 성격이 강하다. 수식어는 관형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따라서 합성어의 접두 요소도 수식어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면서 의미 변화의 폭이 커진다. 수식어는 다양한 뜻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식어가 다양한 피수식어와 연결되면 수식어의 의미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의미 확대가 일어난다. 하지만 수식어가 통

사적인 구성을 이룰 때는 원래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잘 쓰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단어내적 요소로 쓰일 때는 원래의 의미가 퇴화하고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게 된다. (2ㄴ) 합성어 4의 접두 요소 ‘돌’은 자립어 ‘돌’의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사과, 감, 배, 가자미’ 등은 ‘돌’의 종류도 아니고, 재료로 참여하지도 않고, 환경적 요소와도 상관이 없다. 단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식용하는 ‘사과, 감, 배, 가자미’보다 단단하게 생겼기 때문에 생겨난 단어이다. 즉 사람들의 인지에는 ‘돌’은 ‘단단한 것’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어, 이를 단어 형성에 이용하게 된 것이다. ‘단단함’은 ‘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이렇게 어휘의 의미 변화는 어휘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속성 또는 이에서 추출되는 이미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자립명사였던 언어요소의 의미 변화 폭이 커져 의미 특이성을 획득하고, 이러한 특이 의미가 단어 형성에 참여하면 파생 접사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2ㄴ)의 ‘합성어4’는 접두 언어요소 ‘돌’에 의미 변화가 나타났다고는 해도 자립명사 ‘돌’과의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합성어 형성요소일 뿐이다. 하지만 (2ㄷ)의 ‘돌’에는 (2ㄴ)의 ‘합성어4’보다 의미 변화의 폭이 더욱 커져 의미 특이성이 일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ㄷ)의 ‘돌-’의 뜻은 자립명사 ‘돌’과는 거리가 멀다.

(2ㄷ)의 접사 ‘돌1-’에 의해 형성된 단어들은 돌로 되어 있거나, 돌을 재료로 한 것이거나, 돌에서 혹은 돌 사이에서 나는 종류의 것들이 아니다. (2ㄷ)의 ‘돌2-’에 의해 형성된 단어 역시 자립명사 ‘돌’의 의미가 단어 형성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2ㄷ)의 ‘돌-’은 자립명사일 때의 ‘돌’과 달리 의미 특이성이 일어나 단어 형성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접사의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이다. 물론 이때의 의미 역시 ‘돌’과 전혀 무관한 뜻은 아니다. 하지만 이때 ‘돌-’의 뜻은 원형적 의미이기보다는 언어화자들이 가지고 있는 ‘돌’의 이미지에서 유추되어 나타난 의미 변화에 의한 특이성이다.

#### <돌(石)’의 특성과 속성, 이미지> 저가치성, 무생명력.

언어 화자가 ‘돌’에서 유추해 낸 이미지는 ‘저가치성, 무생명력’으로 대변할 수 있다. ‘돌(石)’이 가진 ‘저가치성’은 (2ㄷ)의 접사 ‘돌1-’에 적용된다. (2ㄴ)의 ‘합성어3’인 ‘돌김’은 ‘바닷속 돌에서 자란 김’이지만, (2ㄷ)의 ‘돌미나리’는 ‘돌에서 나는 미나리’가 아니라 ‘논, 개천 같은 곳에 저절로 나는 미나리’이다. (2ㄷ)의 ‘돌꿀밤, 돌메밀, 돌벼’ 등 역시 경작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난 것이다. 이러한 동식물들에 가진 인지가 ‘돌’이 가진 ‘저가치성’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돌1-’의 의미가 생겨나게 되었다. ‘저가치성’은 여기와 관련하여 ‘품질이 낮다’거나 본유의 것(경작하여 수확되는 것)이 아닌 ‘야생의’의 의미로 대변된다. 이

러한 의미는 ‘돌’이 가진 원형적 의미와 거리가 먼 것으로 의미 특이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특이성이 ‘돌’의 기능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런데 언어의 의미 변화는 한 가지 방향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물의 특성은 다각도에서 해석되거나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사물이 은유적 표현으로 쓰일 때는 그런 여러 각도의 특성 중 한 부분에서 유추를 이끌어 오게 된다.<sup>19)</sup> ‘돌(石)’ 역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의 부분이 떨어져 나와 각각의 뜻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돌’이 가진 ‘무생명력’은 ‘돌계집’에, ‘저가치성’은 ‘돌놈, 돌무당, 돌중’에도 적용되어,<sup>20)</sup> (2c)의 접사 ‘돌2’의 의미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것 역시 ‘돌’의 원형적 의미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의미 특이성이 나타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21)</sup>

#### (다) ‘알-’

‘알’은 원래 통사적 범주로서 명사의 자격을 가진 자립형태소이다. 자립 형태소로서 ‘알’의 개념적 의미는 ‘동물의 새끼가 태어날, 껍데기로 싸여있는 타원형의 물질’, ‘열매 따위의 날개’, ‘둥글고 작은 물체’ 등이다. 그리고 ‘알’의 원형적 의미는 두 가지로, ‘새의 알’과 ‘곡식이나 열매의 알’에 쓰이는 뜻이다. 나머지 의미는 원형적 의미에서 확대된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알’이 자립형태소였던 만큼 ‘알’ 결합어 모두를 합성어 형성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알’ 결합어 중에는 자립형태소 ‘알’의 뜻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융합합성어에 의한 의미 변화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융합합성어를 형성하는 어근과 파생어를 형성하는 접사의 뜻은 다르다. 가령 ‘춘추’나 ‘밤낮’은 봄과 가을을 뜻하는 한자어 ‘춘(春)’과 ‘추(秋)’의 결합이나 융합합성어로 ‘나이’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이고, ‘밤낮’ 역시 ‘밤’과 ‘낮’의 뜻이 아닌 ‘항상, 늘’의 뜻으로 융합합성어의 특징이 나타난

19) 언어는 기본영역을 원천으로 하여 대상영역에 다양하게 은유적 투사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기도 한다(이건환 1998:93). 즉 의미 확대는 근원영역의 기본 의미에서 그와 유사한 상황으로 적용 범위가 넓혀진 것이다. 따라서 다의어는 기본의미와 확대된 의미가 굳어져 공존한다(임지룡 1996b:141). 이로 말미암아 어휘는 하나의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서로 관련된 다양한 맥락 의미를 가지고 있다(김종도·나익주역 2001:30). 이 다양한 맥락 의미들은 망(network)으로 연결되어 의미망(meaning network)을 이룬다.

20) ‘돌계집, 돌중, 돌놈, 돌무당’ 등의 ‘돌’의 어원은 ‘돌팔이’에 들어있는 ‘돌다’와 달리 국어 사전이나 서정범(2000:188-189)의 ‘돌바리’와 같은 ‘돌(石)’의 뜻에 따르기로 한다.

21) 옛말 자료에 ‘돌깨(돌개), 돌갯중(돌개잡), 돌귀어리(야생귀리), 돌노약이(돌노야기풀), 돌미나리’ 등의 ‘돌’ 복합어 예가 보인다. ‘돌깨’는 ‘백소(白蘇: 유씨물명고 3장), ‘돌귀어리’는 ‘예맥(隸麥: 유씨물명고 3장), ‘돌미나리’는 ‘야근채(野芹菜: 한청문감 377c)’ 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8세기에 와서야 ‘돌’에는 의미 변화가 나타나고 단어 형성의 기능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춘추’나 ‘밤낮’에서 나타나는 ‘춘’이나, ‘추’, 그리고 ‘밤’이나 ‘낮’ 그 자체가 변화된 뜻으로 새로운 단어 형성에 사용되지는 않는다.

‘알’이 어근으로서 합성어 요소로 쓰일 때와 접사로 쓰일 때의 의미와 기능은 서로 별개의 것이다. 자립적 기능이 있던 형태소라고 해서 무조건 어근으로서의 자격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사회·문화에 따라 음운, 형태, 기능 및 뜻이 변하는 특징을 가진 유동성의 산물이다. 그리고 합성어의 결합요소는 파생어의 접사로 그 기능이 바뀔 수 있음이 이미 증명되었다. 접두사 ‘알-’ 역시 자립형태소였던 것이나 현재 파생접두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이다. 이는 원래 자립형태소인 ‘알’의 의미가 원형적 의미에만 머물지 않고 의미 확대를 일으킨 결과, 이것이 기능 변화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sup>22)</sup> 접두사 ‘알-’이 형성한 어휘 자료를 중심으로 ‘알-’의 의미 변화와 기능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 (3) ‘알’의 뜻과 기능 변화

#### ㄱ. 자립명사 ‘알’의 뜻

알1 : ‘동물의 새끼가 태어날, 껍데기로 싸여있는 타원형의 물질.’

알2 : ‘열매 곡식 따위의 낱개.’

#### ㄴ. ‘알’ 합성어

합성어1 ‘알’ : 타조알, 뱀알, 생선알, … ./ 곡식알, 팔알, … .

합성어2 ‘알’ : 알둥우리, 알탕, 알찜, 알젓, 알집, … ./ 알줄기, … .

#### ㄷ. 접사 ‘알-’의 뜻과 파생어

알1- : ‘알처럼 둥근.’

사물 : 알무, 알뿌리, 알사탕, 알약.

알2- : ‘작은.’

동물 : 알개미.

사물 : 알나리, 알뚝배기, 알바가지, 알요강, 알잔, 알장, 알지게, 알합, 알항아리.

알3- : ‘겉을 싼 것이나 다 벗겨 버렸거나 딸린 것이 다 떨어버린 것’.

곡식, 과일 : 알감, 알곡, 알곡식, 알밤.

신체 : 알궁둥이, 알머리, 알몸, 알몸뚱이, 알발, 알살, 알종아리, … .

땅 : 알땅, 알섬, 알자리, … .

기타 : 알바늘, 알불,

알4- : ‘가장 요긴한 물건’ 또는 ‘가장 실속이 있거나 표본이 되는 것’.

22) ‘알-’이 접두사로 쓰인 예가 옛말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알-’은 현대에 와서 비로소 접두사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 : 알거지, 알건달, 알각쟁이, 알부자, 알부량자.

그 외 : 알가난, 알돈, 알부피, 알심, 알짬, 알천.

(37)처럼 ‘알’이 두 가지 원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여도, 이들 ‘새의 알’과 ‘곡식의 알’을 비교해 볼 때, 이 둘에서 나온 ‘알’의 원형적 의미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새의 알’과 ‘곡식의 알’은 모두 둥글고, 작다는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립명사뿐만 아니라 합성어 형성 요소로 ‘알’이 사용될 때도 그 뜻은 원형적 의미이다. 하지만 ‘알’의 위치에 따라 합성어에 포함되어 있는 ‘알’의 의미는 다소 다르다. ‘알’이 접미 위치일 경우는 (37)의 ‘합성어1’처럼 알의 종류를 뜻한다. 반면, ‘알’이 접두 위치일 경우는 (37)의 ‘합성어2’처럼 ‘알’은 재료가 된다.<sup>23)</sup> 하지만 어느 것이든 ‘알’이 합성어 요소로서 참여할 경우에는 변화된 뜻으로 쓰이지 않고, 원형적 의미로만 사용된다. 이에 비해 접사로서 ‘알’은 접두 위치인데, 이 위치는 관형어의 위치와 같은 것으로 수식의 위치이다.<sup>24)</sup> 접사 ‘알’은 자립 형태소 ‘알’에서 온 것이 사실이나, 원형적 의미가 아닌 변화된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때 변화된 ‘알’의 의미는 ‘알’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화자의 이미지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뜻이 많다.

<‘알’의 특성과 이미지> 둥글, 작음, 속의 것, 겉의 것이 없음, 중요성.

언어 화자가 자립명사 ‘알’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둥글다는 것이다. 이런 이미지에 유추되어 다른 모양과 구별하기 위해 ‘알’을 결합함으로써 ‘둥근’ 모양의 뜻을 대상 사물의 이름에 덧붙태게 된 것이 (37) ‘알1’의 의미이다. 하지만 ‘둥근’ 것이 자립명사 ‘알’의 모든 이미지는 아니다. ‘알’은 ‘작은’ 이미지도 부여하기 때문에 (37) ‘알2’의 의미가 생겨난 것이다.<sup>25)</sup> 언어 생성은 문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새의 알이나 곡식의 알이 모두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타조알을 연상하여 ‘크다’는 이미지가 부여되지 않으며, 이와 더불어 ‘수박알’이나 ‘호박알’ 같은 단어 형성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접사 ‘알’은 자립명사인 ‘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부분들이 떨어져 나와 각각 다른 뜻으로 작용함으로써 의미 변화가 확대되어 나간 것이다.

23) 곡식의 알은 짐승의 알처럼 접두 요소로 작용하여 합성어를 잘 형성하지 않는다.

24) 일반적으로 접두사는 대체로 후행 결합어의 뜻을 한정하는데, 이것은 많은 접두사가 관형어에서 왔다는 추론 근거가 되기도 한다.

25) ‘타조알’처럼 큰 알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타조와 같은 큰 알을 낳는 동물이 없기 때문에 ‘알’이 주는 이미지는 크지 않다. 이는 언어가 문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가지고, 언어 화자의 인지는 같은 문화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ㄴ)의 ‘곡식알’은 합성어로서 ‘곡식의 낱알’이란 뜻이다. 하지만 (3ㄷ)의 ‘알3’의 예 ‘알곡식’은 이와 뜻이 다르다. ‘알곡식’은 ‘알’이 가지고 있는 ‘껍질이 벗겨진’의 의미를 기반으로 형성된 단어이다. 이러한 단어 형성의 틀은 다시 확대되어 (3ㄷ)의 ‘알3’의 다른 예인 ‘알감, 알밤’의 파생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다.<sup>26)</sup> 한편, 이러한 껍질이 벗겨진 곡식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겉의 것이 없고, 속이 드러난’으로 의미 확대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뜻이 사람이나 또 다른 사물에도 적용하게 된다. 사람의 몸에서 속만 있는 것은 ‘옷이 벗겨진 상태’ 즉 ‘옷이 입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뜻은 신체의 일부를 어기로 하여 (3ㄷ)의 ‘알3’에 의해 ‘알궁둥이, 알머리, 알모, 알똥똥이, 알발, 알살’ 등을 형성하게 된다. ‘알땡, 알섬, 알자리’나 ‘알바늘, 알불’의 단어들에서도 ‘알-’은 사람 신체에 작용되는 것과 비슷한 이미지로 ‘겉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의 뜻에 의한 것이지만, 단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라는 점이 다르다.

한편, 자립명사 ‘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 하나로 ‘중요성’이 있다. 이 중요성은 ‘알’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생겨난 이미지이다. ‘중요성’은 ‘실속’이나 ‘진짜’와 연결되기도 하여 또 하나의 접사 ‘알-’의 특이 의미가 생겨난다. 이러한 특이 의미인 (3ㄷ)의 ‘알4’는 ‘사람’을 어기로 하여 ‘알거지, 알건달, 알각쟁이, 알부자, 알부량자’를 형성하게 된다. 또 사람 이외의 사물을 어기로 ‘알가난, 알돈, 알부피, 알심, 알짬, 알천’ 등의 단어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생겨난 (3ㄷ)의 접사 ‘알4’의 특이 의미는 ‘가장 요긴한 물건’ 또는 ‘가장 실속이 있거나 표본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접두사 ‘알-’의 뜻은 자립명사 ‘알’의 원형적 의미와는 상관없이 ‘알’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이미지들을 중심으로 하여 생겨난 의미 변화 결과이다. 이 의미 변화로 인해 접두사 ‘알-’은 자립명사 ‘알’이 가지고 있는 원형적 의미와 의미적 유연성이 멀어져 의미 특이성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알-’의 접사 기능은 언어 화자들이 이러한 의미 특성을 새로운 단어 형성에 이용함으로써 생겨난 것이다.<sup>27)</sup>

이상의 3장에서는 한국어에 나타나는 자립명사의 의미 변화가 기능 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개, 돌, 알’과 ‘개-, 돌-, 알-’과의 상관 관계 속에서 살펴보았다. 접사는 자립성이 없으며, 자립명사일 때와는 다른 의미 특이성을 가지고 있으

26) 여기서의 틀은 인지 언어학의 구성본(constructional pattern) 또는 구성도식(constructional schema)에 해당한다. 물론 이때 이 틀을 이용하는 데는 필요 조건 아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틀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차 이 틀이 퇴화되어 쓸모 없게 되어 버린다. 이러한 틀은 시대나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과거에 사용하던 것이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달라지면서 언어의 틀 역시 달라지고 변화되어 간다. 구성본은 표준문법이 규칙이라 부르는 것에 해당된다(김종도 2002:95).

27) 접사 ‘알-’로 인한 파생어는 옛날 자료(15세기-18세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회·문화가 많이 복잡해진 현대어에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며, 이러한 특이 의미성으로 새로운 단어 형성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부여받는 문법적 기능이다. ‘개, 돌, 알’과 ‘개-, 돌-, 알-’의 관계는 원형적 의미가 변화에 의해 확대되어 나가 그 폭이 커짐으로써 의미 특이성이 생겨나서 이것이 기능 변화 즉 접사화의 계기가 되는 과정과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접사화 역시 크게 보면 문법화(grammaticalization)에 속한다. 문법화 된 형태소에는 의미지속성과 탈범주화의 특성이 나타난다.<sup>28)</sup> 접두사 ‘개-, 돌-, 알-’ 역시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다. 의미적 변화를 거쳤지만, 이들이 자립명사일 때의 의미와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주는 접사로서 기존 범주인 명사와는 다른 어휘 범주를 가지고 있다.

이 장에서 다른 ‘개, 돌, 알’의 의미 변화와 기능 변화를 통합하여 도식화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4) ‘개, 돌, 알’의 의미 변화와 기능 변화

ㄱ.  $\alpha + \beta_1 \rightarrow \alpha\beta_1 \Rightarrow \alpha^x$  : 합성어 I 형성

ㄴ.  $\alpha + \beta_2 \rightarrow \alpha\beta_2 \Rightarrow \alpha^y$  : 합성어 II 형성

ㄷ.  $\alpha' + \beta_3 \rightarrow \alpha'\beta_3 \Rightarrow \gamma$  : 파생어 형성

(4)에서  $\alpha$ 는 자립명사일 때의 ‘개, 돌, 알’을 의미하고,  $\alpha'$ 는 파생접두사 ‘개-, 돌-, 알-’을 의미하며,  $\beta_1, \beta_2, \beta_3$ 는 어근 또는 어기를 의미한다. 여기서  $\alpha$ 는 원형적 의미이지만, 합성어  $\alpha\beta_1$ 나  $\alpha\beta_2$ 를 형성하면서, 조금은 변화된 의미의  $\alpha^x$ 와  $\alpha^y$ 를 얻게 된다. 이러한  $\alpha^x, \alpha^y$ 는 또다른 단어 형성에도 적용되면서 의미 변화를 겪고 기능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편, ‘개, 돌, 알’ 대상어의 특성이나 속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미지로 말미암아 특이 의미가 생겨난 접두사 ‘개-, 돌-, 알-’의  $\alpha'$ 는 파생어  $\alpha'\beta_3$ 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다시 의미 변화가 나타나면 또다른 접두사의 의미  $\gamma$ 가 생겨날 수도 있다.

이상에서 한국어 어휘에 나타나는 의미 변화가 기능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립명사 ‘개, 돌, 알’과 파생접두사 ‘개-, 돌-, 알-’과의 상관 관계 속에서 살펴보았다. 이처럼 언어에 의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유추에 의한 은유 적용이지만, 이러한 기제를 사용하게 된 근본 원인은 인간 인지의 다각적인 언어 응용력 및 적용력에 있다고 본다.

28) 의미 지속성(persistence)과 탈범주화(decategorialization)는 문법화 원리로서 전자는 문법소가 어원어의 의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현상을 가리키고, 후자는 명사, 동사와 같은 일차적 문법 범주의 특성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문법소 같은 이차적 문법범주의 특성을 띠게 되는 현상이다(이성하 1998:184, 186).

#### 4. 마무리

이 글은 본 연구자가 언어의 의미 변화와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지속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파생접사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먼저 파생접사화에 관여하는 의미 변화와 기능 변화의 기제가 무엇인가를 2장에서 밝힌 후, 3장에서는 대상 언어를 선정하여 변화 과정과 변화 결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2장은 인지적 능력의 한 유형인 유추가 언어 변화의 기제가 될 수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이 글에서 유추는 규칙화할 수 있는 유형적인 틀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변화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언어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속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미지의 부분들이 의미 변화에 관여하여 새로운 단어 형성에 이용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 변화의 기제인 유추는 대상의 특징이나 속성, 그리고 이미지와, 새롭게 형성하려는 언어 개념사이의 공통성과 유사성에 기인한다.

3장에서는 유추가 적용되어 의미 변화가 확대되어 나가고, 그러한 의미 확대로 인해 의미 특이성이 언어지면 기능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대상어 ‘개, 돌, 알’을 통해 살펴보았다. 접두사 ‘개-, 돌-, 알-’은 자립명사 ‘개, 돌, 알’의 원형적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의미 확대가 일어난 것이기보다, 어휘의 실제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속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미지에서 추출된 의미를 바탕으로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의미 변화의 폭이 커져 의미 특이성을 얻게 되면, 이것은 접두사화로의 기능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확대된 의미는 원래 언어가 가지고 있던 구체적인 뜻의 약화로 볼 수 있다. 단어의 뜻이 확대되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미가 약화되는데, 이는 의미 추상화의 접근 방향이다. 의미의 추상화는 자립명사가 가지고 있는 뜻이기보다 접사나, 문법형태소인 조사나 어미가 가지고 있는 뜻에 가까운 특징이다. 한국어 ‘개, 돌, 알’과 ‘개-, 돌-, 알-’ 역시 이러한 의미 변화와 함께 기능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어휘들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영근. 1997.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서울: 집문당.  
 국어국립연구원. 1999. 표준국어 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김영옥. 1995. 문법형태의 역사적 연구. 서울: 박이정.  
 김종도. 2002. 인지문법의 다짐돌. 서울: 박이정.  
 김종도·나익주 역. 2001. 문법과 개념화. 서울: 박이정.(Langacker, Rorald W. 1999. *Grammar and Conceptualization*, New York: Mouton de Gruyter.)

- 김진해. 2000. 언어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김창섭. 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서울: 태학사.
- 배주채. 1991. 유추변화는 문법변화인가. 문제제기와 토론. 『주지경학보』 7. 서울: 탑출판사, 137-139.
- 서정범. 2000. 국어어원사전. 서울: 보고사.
- 송원용. 1998. 활용형의 단어 형성 참여 방식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53. 국어연구회.
- 송원용. 2002. 국어 어휘부와 단어 형성 체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송철의. 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서울: 태학사.
- 시정곤. 1999. 규칙은 과연 필요 없는가?. 형태론 1-2. 서울: 박이정, 261-283.
- 안주호. 2001. 한국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현상. 담화와 인지 8-2. 담화·인지언어학회, 93-112.
- 유창돈. 1964a. 이조 국어사 연구. 국어국문학총서 3. 서울: 삼우사.
- 유창돈. 1964b. 이조어사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건환. 1998. 의미 확장에 있어서 도식의 역할. 담화와 인지 5-2. 담화·인지언어학회, 81-99.
- 이기동. 2000. 인지언어학. 서울: 한국문화사.
- 이성하. 1998.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이양혜. 2001. 우리말 파생접사화 변화 양상. 부산 한글 20. 한글학회 부산지회, 137-164.
- 이호승. 2001. 단어형성과정의 공시성과 통시성. 형태론 3-1. 서울: 박이정, 113-119.
- 임지룡. 1996a. 다의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 언어학 18. 한국언어학회, 229-261.
- 임지룡. 1996b. 은유의 인지언어학적 의미분석. 국어교육연구 28. 국어교육연구회, 117-150.
- 임지룡·윤희수·노양진·나익주 역. 2002. 몸의 철학. 서울: 박이정.(Lakoff, George. & Johnson, Mark. 1999.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 채현식. 2000.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글학회. 1992. 우리말 큰사전. 서울: 어문각.
- 홍종선·강범모·최호철. 2001. 한국어 언어 관계 연구. 서울: 월인.
- Bauer, Laurie. 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Bybee, Joan L.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9.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Bybee, Joan L. 1988. Morphology as lexical organization, in M. Hammond & M. Noonan(eds.), Theoretical Morphology, San Diego: Academic Press, 119-141.
- Heine, Bernd, Claudi, Ulrike & Hünnemeyer, Friederike. 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Chicago/London: Chicago Univ. Press.
- Hopper, Paul J. & Traugott, Elizabeth C. 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Langacker, Rorald W. 1987. Foundation of Cognitive Grammar,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이양혜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608-738 부산시 남구 우암동 산 55-1

전화번호 : 051-640-3582, 017-509-1966

전자메일 : lyahye@pufs.ac.kr

이 논문은 2003년 10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3년 1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3년 11월 29일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것임.